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다짐

전북교육청, 청렴 실천 결의대회 열고 공식 표명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등 내용 담긴 결의문 낭독
소통 등 핵심 가치 상징하는 열매 청렴나무에 부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직원조회와 함께 '2026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표명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종합청렴도 2등급 성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2026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조직 전체의 청렴 공동체 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직원이 함께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작됐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요구·지시 및 특혜 제공 금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청렴 열매 맺기' 순서에서는 전 직원 참여형 퍼포먼스와 영상 연출을 결합해 청렴 실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각 부서 대표들은 △청렴 △공정 △존중 △소통 △책임 등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열매를 '청렴나무'에 직접 부착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청렴 꽃피우기'에 이어 올해는 모두의 노력으로 '청렴의 열매'를 맺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북교육 청렴 문화의 완성을 상징한다.

또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하자는 취지로 '함께 굴리는 청렴 공' 행사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북교육 청렴! 1등급!"을 외치며 목표 달성 의지를 다졌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우리 교육이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직원 모두가 청렴 의지를 내재화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직원조회와 함께 '2026년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표명했다.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

국립군산대, 2026학년도 신입생 정원내 정원 1803명 등록
새만금 산업벨트 중심 대학, 산업-인재-지역 선순환 기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6학년도 신입생(정원내) 정원 1,803명 전원이 등록하며 2년 연속 100% 충원율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모집 성과를 넘어, 교육혁신과 산업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방국립대학의 구조적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교육 혁신을 통한 구조적 체질 개선에서 비롯됐다. 국립군산대학교는 무제한 전과 제도와 모듈형 컨버전스 학사과정(MCD)을 도입해 전공 간 융합과 유연한 전공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입학 이후에도 진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학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무료 통학버스 운영과 최신식 기숙사 확충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여건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기계·자동차·전기·전자·AI·스마트제조 등 미래차·전동차 산업과 직접 연계 가능한 학문 분야와 우수한 연구 역량 및 교수진을 기반으로 한 실무형 인재 양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대학·산업 간 직결형 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한편, 새만금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는 지역 전략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인재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학은 산학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성장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기자

"환영합니다"… 전북대, 개강 맞이 행사로 새학기 힘차게 출발

양오봉 총장 등 보직자들
등교 학생에 간식 나눔

"개강을 맞은 전북대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새 학기를 맞아 3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개강맞이 간식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보직자들과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직접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훈훈한 인사를 건넸다.

이른 아침인 오전 8시 20분부터 정문과 서문, 북문, 동문, 박물관 입구 등 캠퍼스 곳곳에서는 3,000명분의 샌드위치와 과일, 음료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캠퍼스에는 감사의 인사와 환한 미소가 오가며 성큼 다가온 봄기운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많은 학생들이 간식을 손에 쥐고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며 첫 등굣길의 설렘을 만끽했다.

전북대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3일 개강맞이 간식나눔 행사를 연 가운데, 양오봉 총장을 비롯하 보직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간식을 건네받은 한 신입생은 "개강 첫날부터 총장님의 응원을 받으며 등교하니 대학생활이 기대된다"며 "총장님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정적인 대학생활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를 힘차고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나이스 콘텐츠 보급으로 학교 현장 지원

전북미래교육연구원, 새학기 맞아… 실무 중심 콘텐츠 63편 숏폼 형태로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김정기)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연구원은 3일, 3월 신학기 업무 집중 시기에 맞춰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실무 중심 콘텐츠 63편을 숏폼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 제작에는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나이스 현장지원단'이 직접 참여했다. 학급 편성, 학생 명부 관리, 시간표 설정 등 학기 초 필수 기초 작업은 물론, 현장지원단이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 이론 중심 매뉴얼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교사들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된 자료는 교직원들이 자주 접속하는 업무포털 화면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필요할 때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기 원장은 "이번 콘텐츠 보급으로 현장 교사들의 나이스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학기 초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이나 시스템 변동 시 신속히 현장 맞춤형 자료를 업데이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설렘 가득 첫걸음… 캠퍼스에 새 봄

우석대, 2026학년도 전주캠퍼스 입학식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3일 2026학년도 전주캠퍼스 입학식을 열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이날 입학식에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조준모 총동문회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최윤호 총학생회장(간호학과 4년)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대표로 나선 유우석(약학과)·강여울(간호학과)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선배들이 쌓아온 학풍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선서했다. 이에 박노준 총장도 신입생들이 학문 탐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총장은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갖고 대학 생활에 임해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대학 역시 신입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가 3일 2026학년도 전주캠퍼스 입학식을 연 가운데, 신입생 대표로 나선 학생 2명이 선서를 하고 있다.

한편 신입생들은 입학식 이후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교수진 및 선배들과 소통하며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2026년도
지방공무원 53명 신규 채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3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총 5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직 40명(일반 36명·장애 3명·저소득층 1명)을 비롯해 전산직 1명, 공업직 4명(일반기계·일반전기), 속기직 1명, 시설관리직 7명 등이다.

응시 자격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8세 이상으로,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돼 있거나, 2026년 1월 1일 전까지 전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더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응시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면접시험은 8월 14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3일 전주새연초등학교를 찾아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첫 학교생활,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길"

유정기 권한대행, 전주새연초 신입생에 입학 축하 메시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3일 전주새연초등학교를 찾아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새연초는 이날 강당에서 4개 학급 71명의 신입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열었다. 유 권한대행은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이어 "학교는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도 배우는 재미있는 곳"이라며 "매일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에게는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교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입학식 이후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도내 초·중·고교 신입생은 초등학교 404개교 8,980여 명, 중학교 206개교 1만4,620여 명, 고등학교 131개교 1만6,230여 명 등 총 3만9,83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오상근 기자

'나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함께 건강 약속'

건협-소년한국일보, 전국 초등생 금연 글짓기 · 그림 공모전
교육부 · 복지부 후원, 초등 1~6학년생 대상… 16일부터 접수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가 소년한국일보와 공동으로 '제31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나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함께 건강 약속'이다. 참가 학생들은 금연 실천을 비롯해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생활습관 등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 부문은 글짓기와 그림으로 나뉜다. 글짓기는 생활글(200자 원고지 7장 내외)과 동시(원고지 3장 이내)로 응모할 수 있으며, A4 용지 작성 원고도 가능하다. 그림 부문은 8절 도화지에 크레파스, 색연필, 물감 등을 활용한 손그림 작품을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작품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받으며, 입상자는 5월 20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부문별 총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대상과 한국건강관리협회장상인 금상 등이 수여되며, 참가 실적이 우수한 학교나 학원 등 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진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략사업본부 홍보과(02-2600-0164) 또는 소년한국일보 교육문화사업부(02-724-251)로 하면 된다.

/오상근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